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 of Community-Residing Elderly's Satisfaction with Life and Influential Factors

최해경, 김정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ae-Kyung Choi(kchoi@cnu.ac.kr), Jeong-Eun Kim(cnuswkim@cnu.ac.kr)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의 성별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천안시와 옥천군)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461명을 유의표집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t-검증과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별로 이원적 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개인 자원,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관계 변수들을 포함한 다중분석 결과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간결하여 친구지지, 정기모임 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다. 남성노인과 비교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훨씬 다양한 요소들로 나타났는데 부모-자녀갈등, 친구지지, 월 소득, 건강상태, 자녀에 대한 지원,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남녀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지역사회 노인 | 삶의 만족도 | 개인 자원 | 사회적 관계망 | 자녀와의 관계 | 성별 차이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gender difference of community-residing elderly's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tial factors. Data were collected from 461 elders aged 60+ with the cooperation of several social service center for the aged, senior centers, and senior citizen association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hungcheongnam-do(Cheonan-si and Okcheon-gun). SPSS 22.0 software was used for t-test and cross tabulat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elderly's life satisfaction by gender in multivariate analysis inclu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social network and relationship with children variables, but no difference in bivariate analysis. There was als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ty-residing elderly's life satisfaction by gender. A few factors like friend support, number of regular social gathering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male elderly's life satisfaction. Predictors of female elderly's life satisfaction which were perceived elderly parent-children conflict, friend support, monthly income, subjective health status, support to children, support from children were more diverse, compared to the predictors for male elderly's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o improve community-residing elderly's life satisfaction considering the gender difference were discussed.

■ keyword : | Community-residing Elderly | Satisfaction with Life | Personal Resources | Social Network | Relationship with Children | Gender Difference |

* 이 연구는 2016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5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6월 19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19일

교신저자 : 김정은, e-mail : cnuswkim@cnu.ac.kr

I.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노인인구의 삶의 만족도 향상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삶의 만족은 현재의 삶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며 행복과 직결된다 [1]. 낮은 삶의 만족도가 노인의 사망률(mortality)을 높이는 위험인자라고 확인한 연구들[2-4]이 나올 정도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제고는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시기로 간주된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국제적인 현상이며[5], 우리나라의 경우도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국민 중 제일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6]. 종단연구로 살펴본 노인 삶의 만족도 분석결과에서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주로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력, 건강상태와 같은 자원 요인, 배우자 및 자녀 만족도, 자녀 접촉빈도와 같은 가족관계 요인, 친구관계나 사회활동과 같은 사회참여 요인들이 검증되었다[8-15].

노년기의 삶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성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별 차이에 주안점을 둔 분석은 정책적 함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성인지적 정책 실현의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16]. 그런데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다수의 연구 가운데 성별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 노인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차이를 메타분석한 김여진과 임연옥(2015)이 종속변수인 주관적

안녕감에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 심리적 복지감, 행복감 등을 포함시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여성노인보다 높았다[16].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들은 독립변수 또는 통제변수로서 성별을 포함한 논문들이다. 삶의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남녀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인정(2007)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향 요인으로 남성노인은 경제적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여성노인은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를 경험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7]. Pinquart와 Sörensen(2001)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건강, 주관적 연령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메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주관적 연령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낮은 주관적 안녕감과 긍정적이지 못한 자아개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18].

노년의 삶은 다양한 측면에서 성별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노인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성별 차이에 초점을 둔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나라 현세대 노인인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보이는 성별 격차를 감안해보면 노인 삶의 만족도는 물론 그 영향 요인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독립변수나 통제변수로 노인의 성별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별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노인 전체의 평균적 특성으로 함몰되지 않도록 성별 차이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삶의 만족도 특성과 다양한 영향 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떻게 다른가?

II. 선행연구 검토

1.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와 성별 차이

Bowling(1990)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일컫는다[19]. 노년기의 삶의 만족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전 생애가운데 축적된 총체적인 평가로서,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직결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이다[20]. 삶의 만족은 성공적 노화로 정의되기도 한다[21].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 노화를 평가하거나 측정하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된다[22-26].

선행연구 결과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먼저,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노인보다 더 높은 결과가 있다[9][16][18]. 성별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거나[17][27], 반대로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28][29]. 이러한 비일관성은 삶의 만족도 측정에 사용된 다양한 척도, 표본 특성, 분석수준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노인이 삶의 전반적 측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2. 노인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과 성별 차이

2.1 개인 자원

국내 연구에서 노인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경제력[9][30-32]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확인되었다[9][30][33]. 국외 연구에서도 노인의 경제력과 건강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11][13-15]. 개인이 지닌 자원이 노년기 삶의 만족을 좌우하는 결정요소로 보고하는 연구로, 양재진·이호연·이정주(2016)는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직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 요소에 머물며 사회적 관계 등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34].

성별 비교를 시도한 연구에서 경제적 사정, 월 용돈 수준 같은 경제력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28]. 건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여성노인의 경우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와[35]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가[36][37]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영향 요인으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보고되는 경제력과 건강상태가 남녀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2.2 사회적 관계망

노년기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은퇴 시기라 사회적 관계망에 변화가 있다. 노인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진영선(2016)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보다 친구와의 교제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38]. 메타분석을 한 Pinquart와 Sörensen(2000)도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에는 자녀나 친척과의 관계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39]. 국내 연구에서도 친구지지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또한 노년기의 정기적 사회참여는 부정적 정서와 심리상태를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참여에 적극적일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3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2.3 성인자녀와의 관계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장수시대의 노인은 성인자녀의 부모로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낸다. 이와 같이 길어진 노년기는 자녀와의 관계 차원에서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노인의 자녀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2014년 노인생활실태 분석결과에서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보면 동거 비율은 과거에 비교해 크게 감소했지만 접촉빈도 및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지원과 돌봄 제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긴밀한 유대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다[41].

한편, 노인세대는 자녀세대의 개인주의화, 만혼 현상, 무자녀 혹은 저출산, 이혼 증가 등 갈등 요인의 증가를 체험하고 있다[42]. 이수연·최인희·김인순(2010)에 의하면, 노인세대의 79.5%, 비노인세대의 80.1%가 세대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대갈등이 매우 혹은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이 8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갈등의 주된 이유로 노인세대의 58.3%와 비노인세대의 61.1%가 생각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여기고 있다[43].

노인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으로 자녀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녀 만족도 혹은 자녀와의 접촉을 다루었다. 자녀관계 만족도는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44]. 자녀와의 교류 또한 노인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증가시키므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45][46]. 김미령(2017)은 자녀와의 잦은 접촉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8]. 국외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즉, 자녀와의 관계가 대체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Connidis(2010)에 의하면 성인자녀와의 관계 및 유대는 노인의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일관성 있게 확인되었다[47]. 드물긴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8].

노인들은 신체적 쇠퇴나 건강의 악화, 소득의 감소, 사회관계망의 축소 등으로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도움을 받게 된다. 자녀로부터 도움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40][49-52]. 하지만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의존하고 있다는 자괴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연구에서는 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53-55]. 효 문화에 토대를 둔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관련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도움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재확

인될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은 자녀에게 베풀어줄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이 노부모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53][54][56]. 한편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 제공의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다[57].

노부모-성인자녀 간 지원이 미치는 영향은 노부모의 연령대, 경제력에 따라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자녀로부터 도움과 자녀에 대한 지원은 중년기와 초고령기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65~79세 사이의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은 긍정적인 영향을, 자녀에 대한 지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성인자녀로부터의 금전수혜 및 금전제공이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전미애와 김정현(2016)에 의하면 노인 전체표본과 저소득 집단에서는 자녀로부터의 금전수혜가 행복감을 높인 반면 고소득집단에서는 자녀에 대한 비정기적 금전제공이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남녀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인데, Cheng과 Chan(2006)에 의하면 남녀노인 모두 자녀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별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12].

개인주의 팽배, 세대 간 소통 단절 등으로 노년기에는 부모-자녀 간 갈등의 심화가 예상되는데 자녀와의 갈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현세대 노인들은 아직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기대를 지닌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자녀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4 인구사회학적 요인

일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된다.

연령과 삶의 만족도간 관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연구결과와[31]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30] 공존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와[30][60][61] 배우자 유무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라는 연구결과가[17][62][63] 혼재하고 있다. 김미령(2017)에 의하면 배우자 유무가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만 투입된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녀 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는 유의성을 상실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자녀 변수가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8]. Berg et al.(2006)에 의하면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부재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27].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30][31]. 그런데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이 작다고 보고하는 연구가[64] 있는가 하면 여성노인의 경우에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성노인 183명과 여성노인 27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와 옥천군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단체의 협조를 받아 유의표집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65]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5개 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능한 점수는 최저 5점에서 최고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9점인 경우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이고, 10~14점이면 불만족, 15~19점은 약간 불만족, 20점이면 만족도 불만족도도 아닌 중립상태, 21~25점은 약간 만족, 26~30점은 만족, 그리고 31~35점은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66].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5$ 이었다.

2.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개인 자원,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관계로 구분하였다.

2.2.1 개인 자원

개인 자원으로 경제력은 월 소득으로 측정하였고, 건강상태는 동년배 노인과 비교를 통한 주관적 평가로 ‘매우 나쁘다(1점)’부터 ‘매우 건강하다(5점)’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지각된 친구지지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수로 살펴보았다. 친구지지는 Zimet et al.(1988)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 사회적 지지 척도(MSPSS)[67]의 친구지지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친구지지의 신뢰도는 $\alpha=.91$ 이었다. 정기적 참여 모임 수는 월 1회 이상 참여하고 있는 종교단체, 동창회, 향우회, 자원봉사단체, 노인단체, 여가 관련 모임의 총 수로 측정하였다.

2.2.3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로부터의 도움, 자녀에 대한 지원, 부모-자녀 갈등으로 살펴보았다. 자녀 도움은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걱정이나 고민 들어주기, 도구적 도움 제공, 경제적 지원 등 구체적 도움을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도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녀 도움 척도의 신뢰도는 $\alpha=.64$ 이었다.

자녀지원 또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걱정이나 고민 들어주기, 도구적 도움 제공, 경제적 지원 등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지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녀지원의 신뢰도는 $\alpha=.65$ 이었다.

부모-자녀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서수균·전지혜·안정신·정영숙(2014)에 의해 개발된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 척도[6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 문항으로 관심/접촉 부족(6문항), 자녀의 자기관리 부족(3문항), 무시(6문항), 손자녀 문제(3문항)라는 4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자녀갈등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 척도의 신뢰도는 $\alpha=.90$ 이었다.

2.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해당되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를 측정하였다. 연령은 만 연령으로,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상으로 구분해 측정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더미 코딩을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저학력

조사대상자는 대면적 면접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월-2월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는 문항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로 검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남녀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전에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검토를 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모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 계수는 교육수준과 월소득 간 .58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한 .7 이상의 높은 계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산팽창계수 검토결과 1.138~2.403이었고 공차한계도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통제 후 개인 자원, 사회적 관계망,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 특성의 성별 차이

성별은 남성 183명(39.7%), 여성 278명(60.3%)으로 여성노인이 많았다. 조사대상자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독립변수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성노인의 평균 연령은 74.04세이고 여성노인은 71.26세로 남성노인 표본의 연령이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남성노인 15.3%, 여성노인 33.5%이고 대학 이상이 남성노인 39.3%, 여성노인 19.4%로 남성노인 표본의 교육수준이 훨씬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남성노인의 79.8%가 배우자가 있는 반면 여성노인의 42.1%만 배우자가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독립변수들의 차이를 보면 먼저 남성노인 가구의 월 소득 평균이 198만 4천원, 여성노인은 177만 3천원으로 두 집단 간 월 소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노인이 동년배 노인에 비교해 좋은 편으로 평가한 비율이 45.6%로 여성노인 35.3%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친구지지의 변환 평균 점수는 각각 4.09와 4.67로 여성노인이 지각하고 있는 친구지지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수는 남성노인 2.11, 여성노인 2.25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녀도움 정도는 변환 평균점수가 각각 3.23, 3.42로 여성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자녀지원 정도는 남성노인 3.40, 여성노인 3.47로 두 집단 모두 중간값 3점을 상회하였는데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자녀 갈등의 변환 평균 점수는 각각 2.19, 2.03으로 두 집단 모두 중간값 3점보다 다소 낮았는데 자녀와 갈등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을 의미한다. 남성노인의 자녀와 갈등 정도가 여성노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표 1. 조사대상 남녀 노인의 특성 차이 (N=461)

특성	남성노인 (183명/39.7%)	여성노인 (278명/60.3%)	chi/t 값
연령	74.04	71.26	-4.57***
교육수준			
초등이하	28(15.3%)	93(33.5%)	30.42***
중학교	33(18.0%)	46(16.5%)	
고등학교	50(27.3%)	85(30.6%)	
대학이상	72(39.3%)	54(19.4%)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146(79.8%)	117(42.1%)	23.72***
무배우자	37(20.2%)	161(57.9%)	
월 소득	1,984,000원	1,773,000원	-1.12
건강상태			
나쁜 편	21(11.5%)	42(15.1%)	5.10
보통	78(42.9%)	138(49.6%)	
좋은 편	83(45.6%)	98(35.3%)	
친구지지	4.09	4.67	4.28***
정기모임 수	2.11	2.25	.79
자녀도움	3.23	3.42	2.45*
자녀지원	3.40	3.47	.88
부모-자녀갈등	2.19	2.03	-2.58*

*p<.05, **p<.01, ***p<.001

2. 노인 삶의 만족도의 성별차이와 영향 요인

[표 2]에 제시된 조사대상자 전체 노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22.09로 임남연·이화령·서은국(2010)의 기준으로는 약간 만족에 해당된다[66]. 남성노인 표본의 삶의 만족도는 21.43, 여성노인 표본은 22.52로 여성노인의 점수가 높은 편이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조사대상 남녀 노인의 삶의 만족도 차이 (N=461)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남성노인	183	21.43	5.88	1.93
여성노인	278	22.52	6.00	
전체노인	461	22.09	5.97	

그러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소들과 개인 자원, 사회적 관계망,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다중분석 결과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성별만 투입된 모델 1이 보이는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소들과 개인 자원,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관계 요인을 추가한 모델 2에서 노인의 성별($\beta=-.1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28][29]. 이 결과는 남성노인들이 은퇴와 함께 변화된 역할이나 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데 비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은 그 관계가 노년기에도 유지된다는 해석과 연결될 수 있다[16]. 박영란과 박경순(2013)에 의하면 남성노인들이 퇴직으로 주된 사회적 연결망 상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여성노인은 노년기 전에 구축한 관계망을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한다[69].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노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친구지지와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상대적으로 낮은 자녀와의 갈등 정도가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망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지역사회 노인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 (N=461)

변수	전체노인			
	모델 1		모델 2	
	b	β	b	β
성별	-.22	-.09	-.23	-.10*
통제변수				
연령			.03	.16**
교육수준			.10	.12*
배우자 유무			.15	.06
개인 자원				
월 소득			.00	.14**
건강상태			.23	.15***
사회적 관계망				
친구지지			.23	.28***
정기모임 수			.09	.14**
자녀와의 관계				
자녀도움			.17	.11*
자녀지원			-.08	-.05
부모-자녀갈등			-.43	-.23***
R ²	.008		.345	
수정된 R ²	.006		.329	
R ² 변화량			.337	
F 값	3.73		21.55***	

*p<.05, **p<.01, ***p<.001

모델 2의 설명력은 34.5%로 모델 1과 비교해 33.7%의 설명력이 늘어났으며,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친구지지(β=.28, p<.001), 부모-자녀갈등(β=-.23, p<.001), 건강상태(β=.15, p<.01), 월 소득(β=.14, p<.01), 정기 모임 수(β=.14, p<.01),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β=.11, p<.05)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각된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갈등이 적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정기적 모임 수가 많을수록,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이 높을수록(β=.16, p<.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β=.12, p<.05),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확인된 노인전체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분석결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와의 관계, 즉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과 부모-자녀갈등이 노인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소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관계망 변수의 영향력은 변화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을 시사해준다. 류재린(2017)은 노인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침차 소홀해지는 가족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70].

3. 남녀노인 삶의 만족도의 성별 영향 요인

[표 4]는 남녀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성별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1에서는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를 포함하였다. 모델 2는 개인 자원, 사회적 관계망, 성인자녀와의 관계 등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한 결과이다.

표 4. 남녀노인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 (N=461)

변수	남성노인		여성노인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β	β	β	β
통제변수				
연령	.07	.09	.19*	.21**
교육수준	.18*	.03	.28***	.13*
배우자 유무	.08	.01	.16*	.09
개인자원				
월 소득		.11		.21**
건강상태		.18*		.19**
사회적 관계망				
친구지지		.21**		.25***
정기모임 수		.17*		.11
자녀와의 관계				
자녀도움		.10		.13*
자녀지원		.08		-.15*
부모-자녀갈등		-.08		-.33***
R ²	.039	.264	.102	.421
수정된 R ²	.021	.217	.091	.396
R ² 변화량		.225		.319
F 값	2.20	5.63***	8.85***	16.46***

*p<.05, **p<.01, ***p<.001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델 1의 설명력은 3.9%이고 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2의 설명력은 26.4%로 모델 1과 비교해 22.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이 모델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성노인 삶의 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표준화 회귀계수(β)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친구지지(β=.21, p<.01), 건강상태(β=.18, p<.01), 정기 모임 수(β=.17, p<.01)이다. 즉, 지각된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기적 모임 수가 많을수록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델 1의 설명력은 10.2%이고 이 모델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모델 2의 설명력은 42.1%로 모델 1과 비교해 31.69%의 설명력이 늘어났으며, 이 모델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여성노인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부모-자녀갈등($\beta = -.33, p < .001$), 친구지지($\beta = .25, p < .001$), 월 소득($\beta = .21, p < .01$), 건강상태($\beta = .19, p < .01$), 자녀에 대한 지원($\beta = -.15, p < .01$),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beta = .13, p < .05$)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자녀갈등이 적을수록,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지원이 적을수록,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이 많을수록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이 높을수록($\beta = .21, p < .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 = .13, p < .05$)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성별로 영향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간결한 반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으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와의 관계, 즉 자녀도움, 자녀지원, 부모-자녀갈등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남녀노인 모두 자녀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별 차이가 없다고 한 국외연구[12]와는 다른 결과다. 사회적 관계망 변수 중에는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친구지지와 정기적 모임 수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친구지지만 유의미하였다. 개인 자원 중 월 소득과 건강상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만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다. 이는 경제력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17][28].

V. 결론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의 삶의 만족은 노인 당사자

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다. 노인 삶의 만족도 연구에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으로 이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의 성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약간 만족에 해당하는 점수로 이원적 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소들과 개인자원, 사회적 관계망,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포함시킨 다중분석 결과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간결하여 친구지지, 정기적 모임 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고 있다. 남성노인과 비교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훨씬 다양한 요소들로 나타났다. 여성노인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독립변수 가운데 부모-자녀갈등, 친구지지, 월 소득, 건강상태, 자녀에 대한 지원,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과 통제변수 중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의 성별 차이가 나타난 분석결과는 실천적 개입 및 노인복지정책 수립에서 성인지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성별 차이를 고려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사회적 관계망 변수인 정기적 모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모임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입이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사회적 모임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정기적 모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20].

둘째,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녀와의 관계, 즉 자녀도움, 자녀지원, 부모-자녀갈등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점을 감안한 여성노인의 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세대 여성노인은 자녀중심으로 살아온 세대로 가족구조와 기능의 급격한 변화로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긴 했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여전히 삶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세대 간의 역할기대 차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의 차이, 과도한 관심이나 간섭으로 인한 경계선 혼란 등으로 부모-자녀 갈등,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이나 자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세대 간 충돌이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다. 자녀로부터 도움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 제공이 부족한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경제적, 도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점진적 확대,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을 줄일 수 있는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특별히 자녀와 갈등이 높은 편인 여성노인은 성인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여성노인이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상담과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노부모와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이 있는 성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화 및 노인 이해 교육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기관 등을 활용하여 부모-자녀관계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자녀 관계 정립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의사소통기술 훈련,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 및 갈등을 해소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71].

셋째,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소득보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득은 의식주 관련 기본 욕구뿐 아니라 건강, 여가 활동,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의 기반이다. 현재 노인 소득보충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활동비 인상 등 정부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소득보충 정책 실행은 여성노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삶의 만족도의 공통 영향 요인인 건강상태 관련해서는 노인인구 대다수가 만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고 건강 증진행동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노인의 자기 돌봄(self-care)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적 개입,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사회 공공 건강관리체계의 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노인 관련 유관기관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및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활성화도 필요하다.

다섯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친구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기관에서 대면적 교류 기회 확대, 비대면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의 접근성 향상, 디지털정보의 활용역량 증진 교육 등을 통해 노인들이 친구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친구지지가 약한 노인들을 위한 주변의 지지체계 개발 및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일부지역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해 지역적 한계가 있다. 둘째, 접근성과 조사 편의성 때문에 노인 관련 단체 및 유관 기관 중심으로 유의 표집을 하여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이 조사대상이 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S. Kim and S. R. Sok,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Health Status,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Korean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18, pp.325-331, 2011.
- [2] A. L. Collins, D. A. Gleib, and N. Goldman,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ll-Cause Mortality," *Psychology*

- and Aging, Vol.24, No.3, pp.696-702, 2009.
- [3] H. Kimm, J. W. Sull, B. Gombojav, S. W. Yi, and H. Ohrr, "Life Satisfaction and Mortality in Elderly People: The Kangwha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Vol.12, No.1, p.54, 2012. <https://doi.org/10.1186/1471-2458-12-54>, 2018.5.3.
- [4] T. Lyyra, T. Törmäkangas, S. Read, T. Rantanen, and S. Berg, "Satisfaction with Present Life Predicts Survival in Octogenarians,"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61, No.6, pp.319-326, 2006.
- [5]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16 edition*, Paris: OECD Publishing, 2016.
- [6] 신용석, 원도연, 노재현,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7권, 제2호, pp.216-250, 2017.
- [7] 정순돌, 이선희,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3개년도(1994, 2000, 2008) 결과비교,"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229-1246, 2011.
- [8] 김미령,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연구: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57권, pp.159-182, 2017.
- [9] 김혜균, *초고령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10] L. Bengtson and M. DeLiema, *Theories of Aging and Social Gerontology: Explaining How Social Factors Influence Well-Being in Later Life*, In M. H. Meyer & E. A. Daniele. *Gerontology: Changes, Challenges, and Solutions*. Santa Barbara, CA: Praeger, 2016.
- [11] A. J. Bishop, P. Martin, and L. Poon, "Happiness and Congruence in Older Adulthood: A Structur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ging & Mental Health*, Vol.10, No.5, pp.445-453, 2006.
- [12] S. T. Cheng and A. C. Chan,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Do Gender and Widowhood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61, No.1, pp.46-53, 2006.
- [13] K. Chou and I. Chi,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in Hong Kong Chinese Elderly: A Longitudinal Study," *Aging & Mental Health*, Vol.33, No.4, pp.328-335, 1999.
- [14] B. Dai, B. Zhang, and J. Li, "Protective Factors for Subjective Well-Being in Chinese Older Adults: The Roles of Resources and Activity," *Journal of Happiness Study*, Vol.14, pp.1225-1239, 2013.
- [15] S. Ng, N. Tey, and M. N. Asadullah, "What Matters for Life Satisfaction among the Oldest-Old? Evidence from China, PLoS One, Vol.12, No.2, e0171799, 201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71799>, 2018.5.3.
- [16] 김여진, 임연옥, "한국 노인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차이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15권, 제9호, pp.195-209, 2015.
- [17] 이인정, "남녀노인의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6권, pp.159-179, 2007.
- [18] M. Pinqart and S. Sörensen,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Vol.56, No.4, pp.195-213, 2001.
- [19] A. Bowling, "Associ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very Elderly People Living in a Deprived Part of Inner Londo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31, No.9, pp.1003-1011, 1990.
- [20] 엄동문, 정정숙,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 제30권, 제4호, pp.27-50, 2014.
- [21] R. A. Pruchno, M. Wilson-Genderson, M. Rose, and F. Cartwright, "Successful Aging: Early Influences and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The Gerontologist*, Vol.50, No.6, pp.821-833, 2010.
- [22] 설순호, 임선영, *노년기 정신장애*, 학지사, 2016.
- [23] M. M. Baltes and L. L. Carstensen, "The process of successful aging," *Ageing and Society*, Vol.16, No.4, pp.397-422, 1996.
- [24] A. I. Berg, *Life satisfaction in late life: Makers and Predictors of Level and Change among 80+ Year Old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08.
- [25] B. J. Fisher, "Successful Aging and Life Satisfaction: A Pilot Study for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Aging Studies*, Vol.6, No.2, pp.191-202, 1992.
- [26] G. J. Westerhof, F. Dittmann-Kohli, and T. Thissen, "Beyond Life Satisfaction: Lay Conceptions of Well-Being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56, No.2, pp.179-203, 2001.
- [27] A. I. Berg, B. Hassing, G. E. Mclearn, and B. Johansson, "What Matters for Life Satisfaction in the Oldest-Old? Aging & Mental Health," Vol.10, No.3, pp.257-264, 2006.
- [28] 박기남,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제24권, 제3호, pp.13-29, 2004.
- [29] H. Okabayashi and G. W. Hougham, "Gender Differences of Social Interactions and their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Japanese Elders," *Aging & Mental Health*, Vol.18, No.1, pp.59-71, 2014.
- [30] 박순미,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3권, pp.305-332, 2011.
- [31] 전명숙, 태명옥,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여가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16권, 제6호, pp.323-333, 2016.
- [32] 정운영, 정세은,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119-1134, 2011.
- [33] 권현수,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5호, pp.995-1008, 2009.
- [34] 양재진, 이호연, 이정주,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제47권, 제2호, pp.75-102, 2016.
- [35] 정순돌, 정세미, 김빛여울, "세대 내, 세대 간 교류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세대 내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2호, pp.253-280, 2016.
- [36] 이경옥, "서울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2권, pp.55-77, 2008.
- [37] 최아름, 정홍주,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33권, pp.29-57, 2013.
- [38] 진영선, *노년 인생 제2막의 삶*,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6.
- [39] M. Piquart and S. Sörensen, "Influence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Compet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Vol.15, No.2, pp.187-224, 2000.
- [40] 이갑숙, 임왕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12권, 제10호, pp.291-306, 2012.
- [41]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42] 김유경, 이진숙, 이재림, 김가희,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43]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44] 김원배,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pp.449-470, 2009.
- [45] 김시월, 조향숙,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재정, 건강, 심리상태와의 관계,"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5권, 제3호, pp.89-116, 2012.
- [46] 장수지,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전후기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pp.75-100, 2010.
- [47] I. A. Connidis, *Family Ties and Aging(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2010.
- [48] R. A. Ward, "Multiple Parent-Adult Child Relations and Well-Being in Middle and Later Life,"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63, No.4, pp.239-247, 2008.
- [49] 김명숙, 고종욱, "노인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13권, 제6호, pp.246-259, 2013.
- [50] 전상남, 신학진, "사회적 지지가 무배우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인지적 기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4권, 제1호, pp.87-101, 2014.
- [51] I. K. Kim and C. S. Kim, "Patterns of Family Support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62, No.1, pp.437-454, 2003.
- [52] H. Lee, J. Lyu, C. Lee, and J. A. Burr, "Intergenerational Financial Exchange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Adults in the Republic of Korea," *Aging & Mental Health*, Vol.18, No.1, pp.30-39, 2014.
- [53] A. Lowenstein, R. Katz, and N. Gur-Yaish, "Reciprocity in Parent-Child Exchan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63, No.4, pp.865-883, 2007.
- [54] A. Roll and H. Litwin, "Intergenerational Financial Transfers and Mental Health: An Analysis Using SHARE-Israel data," *Aging & Mental Health*, Vol.14, No.2, pp.203-210, 2010.
- [55] L. M. Warner, B. Schuez, S. Wurm, J. P. Ziegelmann, and C. T. Roemer, "Giving and Taking-Differential Effect of Providing, Receiving and Anticipating Emotion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Adults with Multiple Illnesse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No.5, pp.660-670, 2010.
- [56] B. Schwarz, I. Albert, G. Trommsdorff, G. Zheng, S. Shi, and P. R. Nelwan,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Chinese, Indonesian, and German Elderly Mot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41, No.5-6, pp.706-722, 2010.
- [57] K. Fingerma, L. Miller, K. Birditt, and S. Zarit, "Giving to the Good and the Needy: Parental Support of Grow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71, No.5, pp.1220-1233, 2009.
- [58] H. Chai and H. Jun, "Relationship between Ties with Adult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iddle Aged, the Young-Old, and the Oldest-Old Korean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85, No.4, pp.354-376, 2017.
- [59] 전미애, 김정현, "성인자녀로부터의 금전수혜 및 금전제공이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2호, pp.249-268, 2016.
- [60] 김희주, 주경희, "한국의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1권, pp.125-158, 2008.
- [61] 원경혜, 이상혁, "노인의 공적, 사적·전소득이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

- 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p.3787-3896, 2015.
- [62] 정태연, 조은영, “노년기의 외로움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탐색,” 한국노년학, 제25권, 제1호, pp.55-71, 2005.
- [63] 윤현숙, 허소영, “노인의 건강변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제27권, 제3호, pp.649-666, 2007.
- [64] 정영해, 조유향, “한국 전·후기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과 성별 차이,” 농촌의학·지역보건, 제39권, 제3호, pp.176-186, 2014.
- [65] E. Diener, R. Emmons, R. Larsen, and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No.1, pp.71-75, 1985.
- [66]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제1호, pp.21-47, 2010.
- [67]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and G. K. Fa 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2, No.1, pp.30-41, 1988.
- [68] 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3권, 제3호, pp.535-555, 2014.
- [69] 박영란, 박경순,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제60권, pp.323-352, 2013.
- [70] 류재린, “관계재가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3호, pp.29-57, 2017.
- [71]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저 자 소 개

최 해 경(Hae-Kyung Choi)

정회원



- 1991년 6월 : University of Minnesota 사회사업대학원 사회복지전공(사회복지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가족복지

김 정 은(Jeong-Eun Kim)

정회원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